

농어촌공사 지진에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 비상 대응 태세 유지

- 진앙지 반경 100Km이내, 농업용 저수지 656개소 전수 조사-



<사진설명>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0일 오전 공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주 지진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30일 새벽(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자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즉시 가동하고 저수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km이내 농업용 저수지 656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대상시설 : 경북(459), 경남(197)

특히, 지진 발생 직후 저수지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등 ICT 기기를 활용하여 저수지 안전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으며, 공사 직원을 긴급 투입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이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공사는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양·배수장 및 취입보 등 1,016개소를 점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긴급지진 대처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안전혁신실	책임자	부 장	이준구 (061-338-6711)
	재난안전부	담당자	과 장	이동진 (061-338-6720)